

불자 세상보기



이원영
수원대교수

요즘 들어 밤상에 앉으면 늘 고민이다. 이 생선은 후쿠시마 앞 바다를 다녀 온 것일까? 좋아했던 참치나 생태를 보면 저절로 넘어가던 집이 이제는 아니다. 대구나 고등어는 어떤가? 오징어는 정체불명의 잡고기와 명태살로 만들어진다는데, 방사능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우리 정부를 믿을 수도 없다. 출출해도 김밥을 먹지니 그안에 들어있는 오징어나 역시 명태살로 만들어지는 게맛살이 걸린다.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주자니 과자속에 일본에서 수입하는 첨가물이 혼합되어 있는 것 같아서 꺼림직하다.

지금 매일 300톤씩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퍼붓고 있다. 대책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태평양을 넘어 우리 바다로 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꼭 먹어야 하는 소금은 나중에 어찌 될까? 세상의 모든 이가 이런 고민을 안할 수 없다.

핵발전소를 없애야 하는 이유

이건 돈으로 계량할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이다. 어업종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후쿠시마는 지금 우리 삶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뒷가로 얻는 핵발전소의 전기기는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 작년에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그전까지 17개 핵발전소가 공급했던 전기의 비중이 23%라고 한다. 77%는 화력이나 재생가능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왔다는 것이다. 선언이후 그 가운데 8개를 정지시키고 9개를 가동시키고 있는데, 이마저도 정기점검이나 고장의 이유로 해서 3개만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그래도 별 문제없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어떤가. 원전 전기생산량에서 34%쯤 차지하던 핵발전소 24개 가운데 지금 11개가 스톱상태고 13개만 가동되는 편이다. 산술적으로는 대략 20% 수준이다. 그런데도 무리가 없다. 세월이 가가 많이 채굴되고 수입되고 있어서 그 틈을 메워주고 있다고 한다. 또, 최근 들어 전기절약운동과 태양광발전이 눈

에 띄고 있는데, 통계적으로는 미약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고작 20%전기에 목매어져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린 자자손손 살아갈 터전의 운명을 거는데, 그에 비해 고작 20%의 전기라니!

핵발전이나 화력발전은 중앙집중식 생산방식이어서 자본투입형 산업의 형태를 가진다. 한국전력과 수많은 자회사들이 바로 그것이다. 후쿠시마사고의 책임이 있는 도쿄전력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태양과 바람과 지열과 바이오매스 등 재생가능에너지는 원료가 공짜다. 설치비의 손익분기점이 예상보다 빨리 오고 동태 고용인력으로 유지관리도 한다.

동네에서 돈이 오가는 자립방식이다. 지금의 사찰전기 요금은 한전이 가져가지만 장래 에너지 자립스타일이 정착되면 그 돈이 상당히 절약될 뿐 아니라 쓰이는 것도 지역민의 고용에 쓰인다. 독일은 최근 12년간 재생가능에너지

의 일자리가 6만에서 36만으로 6배나 증가했다.

에너지절약을 하는 단열시공 리모델링 부문도 지역의 중소기업업체에서 시공과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수명이 다한 건물부터 수요가 커질 것인데 이 돈은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지역경제에서 돌고도는 돈이다. 돈을 쓰는 돈인 것이다. 독일은 이런 분야에 미래경제의 중요한 몫이 있다고 봐서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핵발전소 종사인력은 무얼 먹고사는가? 그것은 핵발전소 폐로시장의 규모가 크다. 1기를 해체하고 폐기하는 게 건설하는 비용의 3조원과 맞먹거나 2/3수준이라고 한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시장이 향후 50년간 1,000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국가적으로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핵재처리 따위에 매달릴 일이 아니다.

하루빨리 발상을 바꾸고 전면적이고 신속한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제2의 후쿠시마가 결코 나와서는 안된다.

社說

조계사·봉은사 역사지구 조성 환영

오랜만에 기쁜 소식이 들린다. 강북과 강남을 대표하는 사찰인 서울 종로 조계사와 강남 봉은사가 시민들을 위한 역사문화 중심지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8월 20일에는 조계종과 서울시가 조계사 일대를 역사문화관광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계에 투입되는 예산만 최대 3500억 원에 이르는 대작불사다. 조계종과 서울시는 향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역사 문화 관광 지구 조성 사업은 2013~2017년, 2018~2022년 총 2단계로 진행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인사동과 조계사, 경복궁을 잇는 전통문화 벨트가 마련된다. 이곳에는 한국불교 현대사의 상흔인 '10.27 법난'을 잊지 않기 위한 역사교육관도 들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197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사찰 신증축에 제약을 받아온 봉은사도 23일 국

민권위원회가 주재한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이번 조정으로 서울시와 강남구는 봉은사 측이 수립해 둔 가람정비계획에 공원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녹지공간을 추가시킨 변경안을 마련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잇달은 도심 사찰들의 역사문화지구 조성 협약은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계사와 봉은사는 인근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니만큼 이번 두 사찰의 역사문화지구 조성은 한국 관광사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다.

이제는 불교계는 사업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팎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전통문화진흥을 위한 대형 사업인만큼 서울시와 지자체 역시도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변화하는 조계사와 봉은사를 기대해 본다.

'100년 도약' 시작하는 대불련 50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가 8월 17일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대불련은 1960년대 이후 한국불교를 기복 불교에서 청년 불교로 거듭 발전시켜 한국불교 대중화와 현대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활동이 가장 왕성하던 때에는 200여 대학에서 회원수만 해도 2만 명이 넘기도 했다. 50년 동안 총 회원수를 따져보면 30만 명에 달한다. 명실공히 한국불교 1700년사에 족적을 남긴만한 대규모 조직이다.

특히 1960년대 대불련 회원들은 당대의 선지식들이었던 성철·정담·퇴옹·탄허·광덕·법정 스님 등 불교계의 큰 스님들을 만나면서 인생관·우주관이 불교적으로 바뀌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대불련을 거쳐간 이들중에는 우리 사회의 동량이 되거나 출가의 길을 선택한 스님들도 상당수 있다. 명호종 쌍용양회 대표이사, 윤재철 대우인터내셔널 사외이사 등을 비롯해 前 대교총 부위원장 법현 스님, 공주 원효사 주지 해월 스님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50년동안

대불련이 펼쳐온 활동들을 보면 이 조직이 반세기동안 얼마나 우리 한국불교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50주년 기념식에 맞춰 발간된 '대불련 50년사'를 보면 대불련의 활동을 1960년대에는 창립과 구도의 열정, 1970년대를 전국조직으로 성장과 화랑대회,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민중불교운동과 한국불교 1600년 대회,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를 통일운동과 남북교류, 수행학교 등으로 정의했다.

앞으로도 대불련은 50주년 기념사업회를 조직해 '미래 50년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학 청년교포를 위한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담당할 대학전법센터 건립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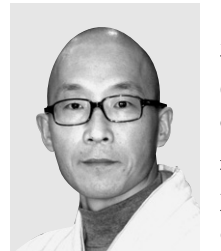
그동안 지성불교와 실천불교를 위해 끊임 없이 달려 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100주년을 향해 힘찬 도약을 시작하기를 기대해 본다.

발원대

해빙모드 따른 남북불교 교류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북 불교도 잇달아 중국 심양에서 회의를 열고 하반기에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해빙모드에 따른 남북불교 교류 활성화 방안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민간차원의 실질적 지원 절실



제정 스님
중앙총무원,
신계사전도감

그동안 불신이 깊었던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풀려서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MB정부의 지난 대북 정책은 남북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못했고 결국 중국만 좋은 일을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관계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꺼내 다시 풀어나가고 새로운 미래를 세우나가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런 화해 분위기 속에 우리 불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진정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장 절실한 것은 의료지원이다. 소외 지역에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등 의료시설을 먼저 지어주고 남한의 의사들이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다면 그것은 불교가 대사회적인 측면에서 공헌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포교의 밑거름이 아닐까?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공존 공생의 분위기는 결국 불자들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 중도사상 화쟁사상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서로 협력해 화해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불교 정신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우리 불자 모두 노력하자.

가능 분야부터 차근차근 교류



고유원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되면서 남북교류가 큰 흐름에서 복원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타결로 인해 민간차원에서 남북교류도 활성화될 계기를 맞았다.

불교계에서는 종교와 민간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먼저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불교계도 동참해야 한다.

불교계는 지난 신계사 복원 및 불교문화재 유적 발굴, 단청 보수지원 사업 등으로 민간교류에 있어서도 단순한 물품지원을 넘어 민족문화 공동의식 함양 등으로 큰 기여를 했다. 남북은 모두 불교문화가 저변에 자리하고 있기에 불교계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불교계의 남북교류 노력이 이제는 평양을 비롯한 도시위주로 진행됐으면 한다. 북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평양 중심, 도시 중심의 불교교류가 필요하다. 이는 차후 남북불교 교류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불교포교의 거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능한 분야부터 차근차근 접근하는 노력을 지속해 간다면 남북관계 복원과 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남북경협은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 그것이 남북관계 해결의 지렛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높아진 조불련 위상 인정해야



이지범
교리대장경연구소
사무처장

남북불교는 지난 8월 17~22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교류회의를 가졌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첫 교류이자, 강수린 북한 조선적십자사 및 조불련 위임장 체제에서 처음 가진 불교교류이다.

지난 8월 14일~17일까지 민간단체 평양방문이 성사된 이후, 종교교류까지 확대됨으로써 오는 23일 이산가족 상봉과 25일 이후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대화로부터 남북교류는 새롭게 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심양회의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신계사와 영통사 등의 선형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과 서산대사 제향 및 대각국사 차례제 등 기념행사, 인도적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교류사업이 올 연말까지 추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교류 내용은 남측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북측 조불련이 현격히 높아진 위상만큼 수용하고 구체화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불교교류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불교계의 역할도 많아지게 되었다. 이미 조불련의 변화는 시작되었고, 하반기까지 불교종단 수장들이 잇따라 바빠에 따라 남북한 불교교류는 다시 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해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인사총원발달팀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연발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발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지사안내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ikukak.com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현상들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